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연구

김은자 · 이유경 · 김상범 · 임창수 · 박미정 · 최진아 · 이정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course of guideline for fostering the Rural village roads

Kim, Eun-ja · Lee, Yoo-kyoung · Kim, Sang-Bum · Lim, chang-su · Park, mi-jung
Choi, Jin-Ah · Lee, Jeung-Won

*Dep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draw the plan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case when developing guidelines to build up roads in rural villages. Drawing the construction elements necessary for building up roads through the advanced researche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relevant experts in order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each plan element of route plan, design & construction and operation & management. The result determined total 105 cont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case when building up roads in rural villages. The study on building up roads in rural villages as a strategy to vitalize rural areas means universal roads that connect each village with rural amenities in various values like walking tour road, visit roads and observation roads. It is considered that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building up roads in rural villages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to build up roads where nature, culture and history of rural areas can be effectively experienced and enjoyed.

Key words : Rural Road, Road Layout, Road Planning, Trail guideline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문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문화 및 환경·생태의 체험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로 삭막해진 현대인들이 여유로움과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과 관련된 생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광레저 활동으로서의 도보여행 문화가 확산되면서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재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느림의 미학’ 혹은 ‘느림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 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른바, ‘슬로우 라이프¹⁾’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0). 이러한 국민적 걷기(Walking) 열풍에 부응하여 2007년 제주도 올레길의 개장으로 시작하여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외에, 문화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 및 조성하는 등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걷기문화와 도보여행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화로 길은 역사와 문화, 자연을 머금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광수요의 급속한 증대로 자연, 역사,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공원, 자연탐방로 등의 계획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박현만, 2012), 대체로 탐방로는 공원 계획의 일부분인 시설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탐방로 계획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정휘, 2008a).

Corresponding author : Lee, Yoo Kyoung

Tel : 031-290-0279

E-mail : upgoplay@konkuk.ac.kr

한국관광공사(2009)의 가족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여 행트렌드의 변화로 트래킹(걷기여행) 및 농촌체험의 선호 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관광대상과 일체감을 느 끼면서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형 관광의 하나인 농촌관광은 점차 매력을 잃어가는 대중관광의 하 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장년층의 도시 진출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저하, 노동력 부족 등의 문 제를 안고 있는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 대안 (Petrzelka et al., 2005)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박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자연은 곧 농촌이며(문옥표, 2000), 근대화로부터의 피난처가 된 다(Short, 1991, Halfacree, 1995). 하지만 지형과 자연자원 등의 생태적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생태탐 방을 위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며(이승주 등, 2009), 도 보여행길 사업은 대부분 농촌지역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과 연계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역 활성화와 농외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전략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농촌 마을길 조성 연구는 다양한 가치의 농촌어 메니티를 가진 마을과 마을을 이야기, 사연, 목적 등으로 있는 길로, 도보여행길 · 탐방로 · 관찰로 · Trail 등 보편 적인 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익 증대, 도 보여행객에게는 농촌어메니티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중 합적인 관점에서의 농촌 마을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 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계획요소 및 특성 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유형을 크게 자연경 관형과 역사문화형으로 분류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길 조성 시 필요한 요소들의 중요 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농촌의 마을길조성을 위 한 가이드라인 개발은 농촌 지역의 자연과 문화 및 역사 를 효과적으로 체험 및 감상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동향

국내 탐방로, 자연관찰로 및 도보여행(걷기문화) 등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이나 특정지역의 사 례를 중심으로 한 계획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환경자원을 이용한 길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테마가 있는 길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경향에 따라 2000년 이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도시 숲과 지역의 역사문화 를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박병

욱, 2008), 백제문화권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에 관 한 연구(윤나리, 2009), 서울 북악산 군순찰로를 활용한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및 이용프로그램 개발(임휘룡, 2010), 안동시 낙동강유역 문화경관을 이용한 탐방로 계 획(심현남, 2011), 고군산도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활용 한 탐방로 활성화 방안 연구(하은찬, 2012) 등 다양한 지 역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 효 윽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활용계획 및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정휘(2008b)는 지리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한 광역 생태탐방로 노선선정 계획 기법 연 구를 수행하였고, 한봉호 등(2009)은 산지형 도시공원 내 산책로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기준 및 관련법규 문 헌을 검토하여 보행약자 산책로 계획을 수행하였다. 이 승주(2009)는 산지형 농촌지역에 복잡한 탐방로 노선계 획과정을 단순화시켜 간편하게 생태탐방로를 계획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송이(2010)는 설악산 국립공원 연구지역에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탐방코스별 지형자원을 선정 및 분석하고 해설관을 통한 교육적 홍보적 측면의 강화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박현만(2012)는 고창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생태자 원을 연계하여 탐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탐방노선 선정 및 프로그램 계획을 도출하였다. 이순주(2012)는 앞산공 원의 자연탐방로 이용자들의 만족요인을 도출하고자 하 였으며, 김상욱(2012)은 ‘구불길’ 군산저수지 구간을 중 심으로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한 중요도 성취도를 분 석하였다. 전강은 외(2012)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문화환경을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거리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국가의 각 부처별 길 관련 사업의 특성을 살펴 보면 환경부(2008)의 생태문화탐방로는 크게 강길, 역사 길, 해안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마을길 (생태적 배경을 가진 시골길, 도시길, 자전거길) 옛길 등 의 다양한 테마를 부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09) 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에서는 생태형, 역사문 화형, 예술문화형, 복합형으로 구분하는 등 주로 자원 특 성에 따른 노선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탐방로 에 대한 연구들은 국립공원, 도심 등의 광역적 지역에서 경관 및 탐방자원을 이용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고 있 으나, 농촌마을과 같이 지역적이고 협소한 지역의 자원 을 활용하여 탐방로를 계획하는 연구들은 미비한 수준이 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길을 자원의 특성을 고 려하여 크게 자연경관형과 역사문화형으로 나누어 가이 드라인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길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노선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요소를 추출 하였으며, 도출된 요소들을 열거한 후 공통적으로 사용된 요소들끼리 분류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삭제하여 재분류 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계획요소의 내용을 토대로 델파이 설문조사에 앞서 5명의 길 전문가와의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안의 내용 수정 및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마을길만의 새로운 안전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농촌 마을길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마을주민역량 및 소득연계’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세부내용 또한 전문가 합의과정을 통하여 중복문항 및 유사의미는 통일시키고, 새로운 의견은 수렴하는 등 추가 및 수정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항목 및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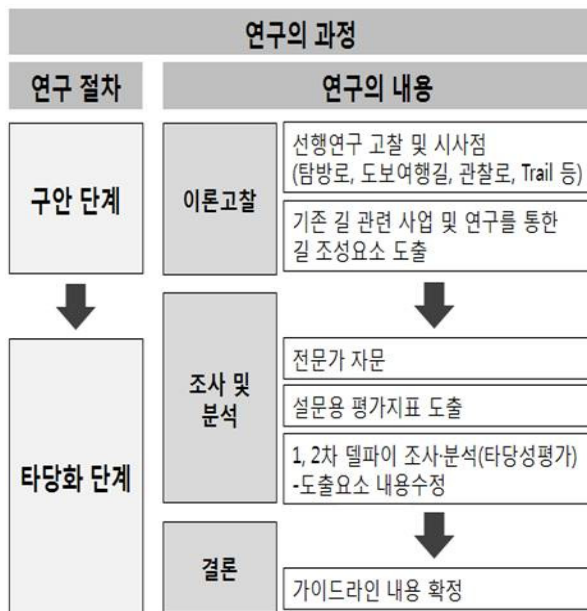


Figure 1 연구의 흐름도.

도출된 길 조성요소 항목 및 세부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1,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노선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확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방향선정을 위한 연구과정은 Figure 1과 같다.

2. 연구 방법

가) 델파이(Delphi)조사

델파이(Delphi) 기법은 통제된 피드백이 제공되는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하여금 개별적 차원이 아닌 전체적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기법으로서 1940년대 미국 랜드연구소의 Think Tank에서 철학자 Kapl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기법 중에 하나이다(안승일, 2012). 이 방법은 조사결과를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수정 및 응답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가능하며, 익명성의 보장으로 자신의 의견 및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종인 등, 2007). Anderson(1977)에 의하면 전문가 패널(Panel)의 수는 10~15명의 소집단의 전문가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규명한바 있다. 본 연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유형별 노선계획부분은 개방형 질문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시 폐쇄형으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설계 및 시공과 운영 및 관리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의 폐쇄형 설문을 이용한 델파이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설문 결과의 분석은 EXCEL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Table 1).

나) 전문가 패널 구성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성 요소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던 전문가 패널(25명)은 교수와 연구원, 현장전문가 및 지역 공무원으로

Table 1 조사기간 및 구성 내용

회차	조사기간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질문 형태	분석 방법	분석 프로그램
1	2012.10.19~2012.11.02	E-mail	유형별 농촌마을길 노선계획 설계 중요도 등 시공, 운영 및 관리 부분의 중요도 등	개방형, 폐쇄형 (Likert 5점 척도)	내용분석,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EXCEL
2	2012.11.09~2012.11.20	E-mail	유형별 농촌마을길 노선계획 설계 중요도 등(재평가) 시공, 운영 및 관리 부분의 중요도 등	폐쇄형 (Likert 5점 척도)	피드백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EXCEL

이루어졌고, 선정기준은 현재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길, 탐방로 관련 프로젝트 및 연구를 수행한 자, 논문 및 보고서, 단행본 등을 발간한 자에 해당하는 이들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의 성별, 연령대, 학력수준, 전공 그리고 관련분야 경력 등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전문가 패널 구성 분석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18	72
	여자	7	28
연령	30대	5	20
	40대	14	56
	50대	6	24
학력	학사	3	12
	석사	5	20
	박사	17	68
직업	교수	8	32
	연구원	11	44
	현장전문가	5	20
	지역공무원	1	4
경력	5년	3	12
	6-15년	13	52
	16-25년	9	36
전공	조경, 생태	7	28
	관광	9	36
	환경	3	12
	도시·지역계획	3	12
	국문학, 역사	3	12
계		25	100

전문가 패널의 남녀 비율은 남자가 72%, 여자가 28%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40대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별 특성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8%가 박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연구원이 48%로 가장 많고, 교수가 32%의 수준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36%가 관련분야에서 1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조사에 응답자 패널의 전공분야별 특성으로는 관광관련 전공자가 전체 응답자의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경분야가 28%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환경, 생태학, 도시 및 지역계획 외에도 국문학 및 역사 등 길 전문가들의 전공분야는 다양한 분포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농촌마을길 조성 요소 도출

농촌마을길 조성시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가이드라인 연구(‘09,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여 12개의 국내 주요 길 관련 사업내용과 관련문헌을 통하여 농촌마을길 조성 시 고려해야 할 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분류된 계획요소를 종합한 결과 노선계획 4개, 시설물계획 16개, 운영 및 관리 3개 총 23개의 소분류로 농촌마을길 기초 가이드라인 안을 구안하였다(Table 3, Table 4). 조성요소 중 대부분의 길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항목은 노선계획의 ‘노선의 길이 및 형태’, 시설물계획의 ‘안내시설’, 운영관리부분의 ‘마케팅 및 홍보’가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3 선행연구를 통한 농촌마을길 조성 요소별 빈도분석

대분류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빈도
	소분류														
노선 계획	노선 길이 및 형태		●	●	-	●	●	●	●	●	-	●	-	●	9
	노선 폭		●	-	-	-	-	●	-	-	●	-	-	-	3
	노선 경사도		●	-	-	-	●	●	●	●	●	-	-	-	6
	노면처리		●	●	-	-	-	●	●	●	●	●	-	-	7
시설물 계획	보행안전 시설	안전펜스	●	●	●	-	●	●	-	●	●	-	-	-	7
		보행테크	●	●	-	-	●	-	●	●	-	-	-	-	5
		다리	●	●	-	-	-	●	●	●	●	-	-	-	6
		계단	●	●	-	-	-	●	●	●	●	-	-	-	6
		보행등	●	-	●	-	●	-	-	-	-	-	-	-	3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연구

		배수	●	-	-	-	-	●	●	●	●	●	-	-	6
		사면보호	-	-	-	-	●	●	●	●	●	-	-	-	5
	부대편의 시설	화장실	●	●	●	-	●	●	-	-	●	-	-	●	7
		휴게시설	●	●	●	-	●	●	-	-	●	-	-	-	6
		주차장	●	-	●	-	●	-	-	-	-	-	-	-	3
	안내시설	안내센터	●	●	●	-	●	-	-	-	●	-	●	●	7
		종합안내판	●	●	-	-	●	●	●	●	●	●	●	●	10
		자원해설판	●	-	-	-	●	●	●	●	●	●	●	●	9
		표식	●	●	-	-	●	●	●	●	●	●	●	-	9
		방향표지	●	●	-	-	●	●	-	-	●	●	●	●	8
		주의표지	-	-	-	-	●	-	●	●	-	●	●	-	5
운영· 관리	프로그램 계획	●	-	-	●	●	●	●	-	●	-	-	●	7	
	마케팅 및 홍보	-	●	-	●	●	●	●	●	●	●	-	●	9	
	모니터링 및 평가	●	●	●	●	-	●	-	-	-	●	●	●	8	

- a 국토해양부(2011),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연구
- b 문화체육관광부(2010), 동해안 탐방로 사업계획
- c 문화재청(2010),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d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서울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방안
- e 대구경북연구원(2008), 울릉 해변숲 생태탐방로 계획구상
- f 문화체육관광부(2009),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가이드라인 연구
- g 환경부(2007),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
- h 전북발전연구원(2009),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을 위한 노선선정 방안 및 선정노선의 특성분석
- I 제주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2010), 제주형(올레) 생태문화로 조성방안
- j (사)한국의 길과 문화(2012), 문화생태탐방로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 k (사)한국의 길과 문화(2011), 탐방로 조성 매뉴얼-탐방로 표지를 중심으로-
- l 한강유역환경청(2009), 한강하구 탐방로 설치 및 철책선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Table 4 선행연구를 통한 농촌마을길 조성 요소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대분류	소분류	
노선 계획	노선 길이 및 형태	-이용객에 부담이 없는 적절한 보행거리 코스 설정 -가급적 기존의 길을 그대로 유지활용 및 정비 -가능한 순환형으로 코스 설정 -인공적인 디자인은 피하고 가능한 곡선으로 노선설정 -기본구간 길이는 직선형 편도(3~6km), 환상형(최소4~8km)로 계획하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코스의 전체 길이 등을 설정
	노선 폭	-기존의 길을 그대로 활용 및 정비 -통행량에 따라 폭을 조정하나 가급적 기존의 폭 유지 -안전상 부득이한 곳 노폭확장 -최소 0.4~0.6m 이상의 폭을 확보하며 최대 폭원은 1.2~1.5m로 함
	노선 경사도	-급경사지는 피하며 경사가 급한 구간은 짧게 설정 -보행이 편리하고 침식이 적은 경사도는 5~7% 정도이나 해당지역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연속경사로의 경우 30m마다 1.5m×1.5m이상의 수평면 참 설치

구분		세부내용	
대분류	소분류		
	노면처리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부득이하게 포장 필요시 인공적인 디자인은 피하고 자연 재료를 이용 -인공포장이 불가피할 경우 마사토→쇄석→돌붙임→소일콘크리트→콘크리트 포장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 -견고하면서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게 정비	
시설물 계획	보행 안전 시설	안전 펜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방지가 필요한 장소에 최소설치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한지역 설치하며 주위 경관과 조화 고려 -크기를 최소화하고 슬림한 구조로 설치 -위험지역에서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 (1.0~1.1m)
		보행 데크	-답압을 피해야 하는 경우 지면과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보행 안전성 제고 및 자연재료(목재) 활용 -시설물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주의
		다리	-계곡 및 하천에 목교 또는 돌다리(징검다리)를 설치 -기존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침수 방지를 위해 노선계획과 적정높이 설정 -자연재료를 활용 하며 가급적 목재 데크로 설치
		계단	-자연성 확보를 위해 계단 설치는 가능한 최소화 -과도한 경사로의 연속설계 지양 및 자연재료 활용 -계단 시·종점에 배수로 설치 -계단 높이는 18cm 이하, 단 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함 -돌계단 작업은 계단폭 30cm 이상, 높이 15cm 이하로 시공
		보행등	-야간 보행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1m 이하의 낮은 높이로 설치 -보행이용에 불편함 없는 밝기 확보 및 적절한 배치 -노선의 경계부에 배치하여 탐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인공적인 느낌 완화
		배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지형과 식생을 충분히 고려 -배수로는 돌, 목재 등 자연 친화적 재료 사용 -등고선 방향으로 나 있는 길은 약 2~4%의 횡단경사를 성토사면쪽으로 주어 신속한 자연배수 유도 -물이 모이는 곳과 용출수가 나오는 곳은 측구 또는 암거를 이용하여 배수처리
		사면 보호	-노선에 인접한 산지사면은 현존식생을 보존하고 나지 발생구간은 식생 복원 -현장에서 수급이 가능한 재료로 흙막이공을 설치 -절토사면을 1:1 안정각으로 유지하고 절토사면이 길어질 경우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사면거리 조절
부대·편의 시설	화장실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정비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규 또는 간이화장실로 대체 -노선과 연계하여 탐방객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 -적절한 차폐 및 주변과 어울리는 소재 및 색상 선택	
	휴게 시설 (벤치, 정자)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편리성 제공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선정 및 경관훼손 최소화 -벤치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선과 평행하게 배치 -정자는 들여놓는 배치로 쾌적한 보행 동선을 확보함	
	주차장	-노선의 시·종점 인근의 마을 주요 시설 활용 -부득이하게 조성시 최소한의 면적으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연구

구분		세부내용	
대분류	소분류		
	안내시설	안내 센터	-마을 주요 시설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적절한 정보 제공 -짧은 구간의 경우 안내센터 설치 보다 종합안내관 및 안내책자 마련 등으로 간소화
		종합 안내관	-탐방로 전체지도와 루트, 간단한 정보 제공 -코스 시·종점이나 주요 거점에 설치 -현 위치, 노선안내, 편의시설, 탐방로 개요 정보 제공
		자원 해설관	-지역의 자연,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주요자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흥미 유발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그래픽, 사진, 설명문으로 구성
		표식	-리본, 표찰, 바닥표시 등으로 방향유도 ○ 리본은 내구성이 약해 길안내가 어려운 숲길 구간으로 최소화 ○ 리본은 숲길에서 최소 5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코스가 명확한 길은 최소화 ○ 표찰은 내구성이 강하고 미관저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 ○ 표찰은 100m 간격으로 포토 존이나 전망대에 부착 ○ 바닥표시는 지양하나 불가피한 경우 틀을 제작하여 바닥에 표시
		방향 표지	-목적지까지의 안전한 유도를 위한 적절한 배치, 자연재료사용 -이용자 혼동을 막기 위해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치 -다음 거점지역과 남은거리를 표시 -길을 잃기 쉬운 분지점에서는 20~50m 앞이나 뒤에 예고표지를 배치
		주의 표지	-자연환경보존, 사고방지, 사유지보호, 이용 규제의 인지 등을 위해 설치 -짧은 구간에 반복하여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꼭 필요한 곳에 설치
운영·관리 방안	프로그램 계획	-마을의 역사·문화·자연자원 활용, 테마가 있는 길 조성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기반시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적극 발굴 -주변자원과 연계한 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주민 해설가이드 교육을 통해 해설가이드 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 운영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 -해당지역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테마에 준하여 연간 탐방프로그램 계획	
	마케팅 및 홍보	-상징 시설물을 이용한 랜드마크 조성 -심벌 디자인을 개발하여 정보제공과 함께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정보 제공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형 관리방식을 통한 농촌마을길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사업의 취지와 목적, 탐방가치를 널리 알려 탐방객 확보 -숙박, 교통, 음식점 등 연계서비스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노선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통행제한, 탐방로 노선 표시, 계도안내관, 탐방로 주변 훼손지 복원 등 신속하게 대처 -탐방로 주변 자연생태계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하여 생물종별 서식 중수와 개체수 파악 -탐방객수요관리 및 탐방시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탐방로의 계획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 -자연환경, 탐방로, 시설 등의 물리적인 요소와 이용객수, 이용행태, 주민과의 관계, 대외관계 등 탐방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 분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IV. 유형별 농촌마을길 조성 가이드라인 방향 설정

1. 유형별 노선계획 타당성 평가

1차 델파이 조사(개방형 문항)에서 노선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공통부문’, ‘자연경관형’, ‘역사문화형’으로 구분하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형별 노선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

를 바탕으로 2차 조사에서 노선계획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공통부문에서는 ‘기존 산책로(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보길)나 마을길 등을 최대한 활용 한다’의 긍정률과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경관형에서는 ‘주요경관요소를 선정하고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역사문화형에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충분한 해설기능을 제공(표지판, 모바일 앱 등)한다’의 내용이 가장 높은 긍정률과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노선계획 내용 분석 결과(1·2차)

구분	노선 계획	긍정률 (%)	표준 편차	평균	
공통 부 문	기존 산책로(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보길)나 마을길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84	0.3	4.9	
	타 부처, 지자체 등 조성계획 및 기 조성된 길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84	0.5	4.4	
	노선 선정 시 외부 길 전문가와 현지 마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한다.	80	0.6	4.5	
	마을의 농촌 어메니티 활용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시 하면서 주변의 가치 있는 자원과 연계시킨다.	80	0.5	4.2	
	자연경관의 조화와 연속성이 유지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76	0.6	4.2	
	주민거주지 노선선정은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며 무분별한 관통을 제한한다.	80	0.6	4.4	
	농촌지역주민의 사생활 및 경작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을 설정한다.	84	0.5	4.5	
	길의 시·종점 접근시 대중교통 및 자가용방문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76	0.7	4.4	
	가급적 순환이 가능하며 단절구간 없이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노선을 선정한다.	76	0.6	4.2	
	방문객들이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지치지 않도록 그늘길을 적절히 섞은 노선을 선정 한다.	72	0.5	4.0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노선선정을 고려한다.	64	0.6	3.9	
	도로나 철도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한다.	60	0.7	3.8	
	단조로운 목적지 지향적인 형태보다는 주변 관광을 병행한 노선 형태를 지향한다.	52	0.7	3.6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동선계획과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68	0.7	4.0	
	자 연 경 관 형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개발은 최소화하고 훼손지는 반드시 식생복원을 실시한다.	80	0.6	4.4
생물다양성 확보를 우선시 하며 보호가치가 있거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주요 보호종의 서식지는 우회한다.		84	0.5	4.5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형화된 형태를 지양한다.		64	0.7	4.0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위해 자연자원 색보다 저명도, 저채도색을 사용한다.		44	0.6	3.6	
자연재료인 목재, 석재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		72	0.7	4.0	
자원훼손은 최소화하되 경작지, 유실수 등 농촌경관이 부분적이라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6	0.6	4.2	
주변 식생과 유사한 식물 종을 식재하여 경관을 유지시킨다.		76	0.6	4.2	
주요경관요소를 선정하고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80	0.6	4.4	
자생식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태성을 증진시킨다.		80	0.6	4.3	
습지, 둠벙 등은 반드시 우회하도록 계획한다.		56	0.8	4.0	
다른 종류의 생태계가 어우러지는 노선으로 선정하면 다양한 경관 감상이 가능하다.		56	0.5	3.7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숲길을 연계시킨다.		76	0.6	4.3	
역 사 문 화 형		역사문화자원의 주변 시설물은 과도하지 않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80	0.6	4.3
		역사문화자원에 사용된 전통색상을 사용하여 색채계획을 실시한다.	72	0.6	4.0
		역사문화자원과 유사한 재료를 적용하여 이질감 없는 경관을 조성한다.	76	0.6	4.1
	자원훼손이 없도록 조성 및 역사적 고증을 통한 옛길이나 유적지 등의 복원 계획을 실시한다.	80	0.7	4.3	
	탐방대상인 역사문화자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한다.	48	0.7	3.5	
	단순 관람형 탐방자원보다는 체험형 탐방자원의 설치를 고려한다.	60	0.6	3.8	
	역사문화자원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미지를 조성한다.	72	0.7	4.0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지역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갖는다.	80	0.5	4.2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연구

구분	노선 계획	긍정률 (%)	표준 편차	평균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충분한 해설기능을 제공(표지판, 모바일 앱 등)한다.	80	0.6	4.4
	옛길발굴을 통한 농촌마을길 조성시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다양한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8	1.1	3.5
	각 마을의 내려오는 구전설화를 채록하여 루트에 접목시켜 활용한다.	84	0.5	4.3
	지나친 역사문화형 노선계획은 이야기는 있으나 걷기에 삭막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관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76	0.9	4.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긍정률이 75%미만이거나 평균이 3미만으로 측정된 내용과 전문가의 추가적인 기술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항목 10건, 삭제항목 5건으로 재수정되었으며, 공통부문의 '단조로운 목적지 지향적인 피스톤형 보다는 스폰형, 안전핀형 및 텀블린형 등의 노선을 지향한다'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동선계획과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자연경관형의 '자연재료인 목재, 석재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

리움을 연출한다', 역사문화형의 '역사문화자원에 사용된 전통색상을 사용하여 색채계획을 실시한다', '옛길발굴을 통한 농촌마을길 조성시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다양한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의 의견은 낮은 긍정률 및 평균, 중복된 의견으로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였다(Table 6). 유형별 노선계획부문에서의 1·2차조사결과 최종적으로 공통부문 14개, 자연경관형 9개, 역사문화형 10개 항목으로 총 33건이 확정되었다.

Table 6 수정된 유형별 노선계획 내용

구분	1차 및 2차 내용	변경사항	확정 내용
공통 부 문	방문객들이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지치지 않도록 그늘길을 적절히 섞은 노선을 선정 한다.	내용수정	방문객들이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지치지 않도록 일부 그늘길을 포함한 노선을 선정 한다.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노선선정을 고려한다.	내용수정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노선을 먼저 고려한다.
	단조로운 목적지 지향적인 피스톤형 보다는 스폰형, 안전핀형 및 텀블린형 등의 노선을 지향한다.	내용삭제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동선계획과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내용삭제	-
노 선 계 획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형화된 형태를 지양한다.	내용수정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형화된 노선형태를 지양하고 인공시설물은 가능한 배제한다.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위해 자연자원 색보다 저명도, 저채도색을 사용한다.	내용수정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자연재료를 이용하고 자연자원 색보다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계획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
	자연재료인 목재, 석재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	내용삭제	-
	습지, 둠벙 등은 반드시 우회하도록 계획한다.	내용수정	습지, 둠벙 등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계시킨다.
	다른 종류의 생태계가 만나는 edge(ecotone)를 노선으로 설정하면 다양한 경관 감상이 가능하다.	내용수정	다른 종류의 생태계가 어우러지는 노선으로 선정하면 다양한 경관 감상이 가능하다.
역 사 문 화 형	역사문화자원의 주변 시설물은 과도하지 않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내용수정	역사문화자원의 주변 시설물은 과도하지 않고 간결한 디자인과 색채계획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역사문화자원에 사용된 전통색상을 사용하여 색채계획을 실시한다.	내용삭제	-
	탐방대상인 역사문화자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한다.	내용수정	탐방대상인 역사문화자원을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배열한다.
	단순 관람형 탐방자원보다는 체험형 탐방자원의 설치를 고려한다.	내용수정	코스의 거리에 따라 10km 이상의 장거리는 관람형태를, 5km 내외는 체험형 형태를 위주로 탐방자원을 고려한다.

구분	1차 및 2차 내용	변경사항	확정 내용
	역사문화자원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미지를 조성한다.	내용수정	역사문화자원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살려 노선의 이미지를 조성한다.
	옛길발굴을 통한 농촌마을길 조성시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다양한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용삭제	-

2. 설계 및 시공 타당성 평가

설계 및 시공은 노선(12개), 보행안전시설(12), 부대편의시설(9), 안내시설(10)개로 총 4개로 구분된다. 설계 및 시공의 델파이 분석 결과 1차에서 2차로 갈수록 표준편차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평균과 긍정률 또한 높게 나타나, 이는 패널들의 의견일치 정도가 높아진 것이라 사료된다. 노선의 설계 및 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은 ‘인공적인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포장구간은

최소한으로 한다’, 보행안전시설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반침하방지·배수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부대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은 노선의 시·종점 및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가능한 인근의 마을 주요 시설을 활용한다’, 안내시설은 ‘동선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 시·종점 및 주요 거점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가 가장 높은 긍정률 또는 평균을 나타내었다(Table 7).

Table 7 설계 및 시공 내용 분석 결과(1·2차)

구분	설계 및 시공 내용	1차			2차		
		긍정률 (%)	표준편차	평균	긍정률 (%)	표준편차	평균
노선	출발지역까지 되돌아 갈 수 있는 순환성을 고려한다.	52	0.7	3.9	64	0.6	3.9
	일반 등산로와의 차별성을 위해 보행 쾌적성을 우선시한다.	64	0.8	4.0	76	0.4	4.0
	인공적인 디자인을 피하고 보행의 편의성을 위해 완만하고 자연스러운 곡선형 노선을 지향한다.	76	0.6	4.4	84	0.4	4.2
	노선의 길이, 고도, 난이도 등을 다양화하여 이용객들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48	1.0	3.9	56	1.0	4.0
	주변 식생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노폭을 유지한다.	64	0.7	4.2	80	0.6	4.3
	노폭확장 필요시 적정 노선 폭은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48	0.7	3.7	48	0.7	3.6
	일률적인 경사는 피하며 7%의 미만의 적정경사도를 유지한다.	32	0.8	3.2	40	0.7	3.3
	자연상태의 노면을 유지한다.	68	0.7	4.3	76	0.6	4.2
	노면포장은 탐방객 수, 바닥재질, 경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68	0.9	4.0	80	0.8	4.0
	인공적인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포장구간은 최소한으로 한다.	76	0.7	4.3	84	0.5	4.3
보행안전시설	노면포장의 시작점과 종점의 경계부는 마감처리를 견고하게 처리한다.	40	1.1	3.5	56	0.7	3.8
	외부에서의 자재 반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현지 또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60	0.9	4.1	76	0.7	4.2
	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72	0.7	4.5	80	0.7	4.4
	안전시설은 크기를 최소화하고 슬림한 구조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72	0.6	4.3	80	0.5	4.2
	데크를 설치할 경우 보행 안전성 제고 및 자연재료인 목재를 이용한다.	72	0.7	4.1	76	0.6	4.0
	다리는 침수 방지를 위한 높이와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와 형태를 선정한다.	72	0.9	4.0	80	0.6	4.0
	토사 유실이 많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급경사지에는 계단을 설치한다.	56	1.0	3.9	64	0.8	4.0
	배수는 현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한다.	68	0.7	4.4	80	0.6	4.5
	계단 양쪽과 시·종점의 배수처리를 반드시 고려한다.	72	0.6	4.2	76	0.6	4.2
	계단은 높이 15cm이하 폭 30cm이상을 준수한다.	40	0.9	3.8	52	0.6	3.7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연구

구분	설계 및 시공 내용	1차			2차		
		긍정률 (%)	표준편차	평균	긍정률 (%)	표준편차	평균
	보행등은 야간보행을 위해 1m 이하의 낮은 높이로 설치하며 길 형태에 맞는 적절한 밝기와 배치를 고려한다.	28	1.1	3.1	32	0.9	3.1
	사면보호를 위해 노선에 인접한 산지 사면은 현존식생을 보존하고 나지 발생구간은 반드시 식생복원을 실시한다.	68	0.9	4.4	76	0.7	4.5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반침하방지·배수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80	0.5	4.6	84	0.5	4.7
	과도한 지형훼손과 녹지훼손, 노선 주변 질·성토는 최소화한다.	76	0.4	4.9	80	0.5	4.8
부대편의시설	편의시설은 노선의 시·종점 및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가능한 인근의 마을 주요 시설을 활용한다.	76	0.6	4.6	84	0.5	4.6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한다.	72	0.7	4.4	84	0.5	4.4
	화장실 주변은 적절한 차폐 및 주변과 어울리는 식생을 선택한다.	52	0.7	3.9	68	0.5	3.9
	휴게시설은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이용을 함께 고려하여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한다.	76	0.5	4.2	84	0.3	4.1
	휴게시설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60	0.9	3.9	76	0.4	4.0
	벤치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선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44	0.8	3.5	52	0.6	3.6
	정자는 들여놓기하여 쾌적한 보행 동선을 확보한다.	40	0.9	3.4	60	0.7	3.6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면적으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한다.	60	0.9	3.7	76	0.7	3.8
	유니버설디자인 등 다양한 신체적 조건의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용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60	0.9	4.1	72	0.8	4.1
	안내시설	마을 내 주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72	0.7	4.5	76	0.7
동선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 시·종점 및 주요 거점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76	0.6	4.8	84	0.3	4.9
농촌마을길 마을지도와 루트, 지역의 자연,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변 자원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질을 높인다.		72	0.8	4.4	84	0.5	4.7
종합안내판은 그래픽, 사진, 설명, 해설문 등을 단순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작한다.		76	0.6	4.5	84	0.5	4.5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68	0.7	4.4	84	0.5	4.5
재료의 유독 성분이 야생동식물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화학처리는 가급적 지양한다.		56	0.9	3.9	68	0.7	4.1
리본은 최소 50m 간격으로 설치하여 길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스가 명확한 길에는 설치를 최소화한다.		44	0.8	3.8	48	0.7	3.7
방향유도시설의 경우 분지점을 기준으로 50m 정도의 앞·뒤에 예고표지를 배치한다.		48	0.9	3.6	52	0.7	3.6
방향유도시설은 다양한 각도의 안내가 가능한 디자인 형태를 이용하여 유용성을 더한다.		60	0.6	3.9	76	0.5	4.0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설치와 안전관리사항을 담은 홍보물과 안내프로그램을 활용한다.		40	1.1	3.5	60	0.9	3.6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긍정률이 75%미만이거나 평균이 3미만으로 측정된 내용과 전문가의 추가적인 기술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항목 17건, 삭제항목 4건으로 재수정되었으며, 노선부문에서 ‘노폭확장 필요시 적정 노선 폭은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일률적인 구배는 피하며 7%의 미만의 적정경사도를 유지한다’의 경우 낮은 수치와 직접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으며, ‘노면포

장의 시작점과 종점의 경계부는 마감처리를 견고하게 처리한다’, 부대편의시설에는 ‘정자는 들여놓기하여 쾌적한 보행 동선을 확보한다’ 또한 낮은 긍정률 및 평균으로 목록에서 삭제하였다(Table 8). 설계 및 시공에서의 1·2차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노선 10개, 보행안전시설 12개, 부대편의시설 8개, 안내시설 10개 항목으로 총 40건이 확정되었다.

Table 8 수정된 설계 및 시공 내용

구분	1차 및 2차 내용	변경사항	확정 내용
노선	출발지역까지 되돌아 갈 수 있는 순환성을 고려한다.	내용수정	단조로운 목적지 지향적인 코스보다는 출발지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순환성을 고려한다.
	노선의 길이, 고도, 난이도 등을 다양화하여 이용객들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내용수정	노선의 길이, 체형형태 등을 다양화하여 이용객들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노폭확장 필요시 적정 노선 폭은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내용삭제	-
	노면포장의 시작점과 종점의 경계부는 마감처리를 견고하게 처리한다.	내용삭제	-
보행 안전 시설	안전시설은 크기를 최소화하고 슬림한 구조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내용수정	안전시설은 꼭 필요한 경우 안전성을 우선시 하며, 가능한 크기를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리는 침수 방지를 위한 높이와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와 형태를 선정한다.	내용수정	탐방로 내에 설치되는 교량은 재단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토사 유실이 많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급경사지에는 계단을 설치한다.	내용수정	토사 유실이 많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급경사지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을 설치한다.
	계단은 높이 15cm이하 폭 30cm이상을 준수한다.	내용수정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계단은 높이 15cm이하 폭 30cm이상을 준수한다.
	보행등은 야간보행을 위해 1m 이하의 낮은 높이로 설치하며 길 형태에 맞는 적절한 밝기와 배치를 고려한다.	내용수정	야간보행을 위한 보행등 설치의 길 형태에 맞는 적절한 밝기와 배치를 고려한다.
	사면보호를 위해 노선에 인접한 산지 사면은 현존식생을 보존하고 나지 발생구간은 반드시 식생복원을 실시한다.	내용수정	사면보호를 위해 노선에 인접한 산지 사면은 현존식생을 보존하고 나지 발생구간은 자연천이를 유도하여 식생복원을 실시한다.
부대 편의 시설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한다.	내용수정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며 일부 안내판이나 소규모의 로고 등은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한다.
	화장실 주변은 적절한 차폐 및 주변과 어울리는 식생을 선택한다.	내용수정	화장실 주변의 식재는 가급적 적절한 차폐가 가능한 식생을 선택한다.
	벤치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선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내용수정	노선상황에 따라 벤치와 정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치한다.
	정자는 들어넣기하여 쾌적한 보행 동선을 확보한다.	내용삭제	-
	유니버설디자인 등 다양한 신체적 조건의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용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내용수정	다양한 신체적 조건의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등 가급적 사용자 중심의 설치를 한다.
안내 시설	마을 내 주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내용수정	마을 내 주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기존 시설의 가치가 낮을 경우 리모델링한다.
	재료의 유독 성분이 야생동식물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화학처리는 가급적 지양한다.	내용수정	재료의 화학처리는 가급적 지양한다.
	리본은 최소 50m 간격으로 설치하여 길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스가 명확한 길에는 설치를 최소화한다.	내용수정	길이용에 있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방향유도시설은 반드시 설치한다.
	방향유도시설의 경우 분지점을 기준으로 50m 정도의 앞·뒤에 예고표지를 배치한다.	내용수정	방향유도시설의 경우 분지점을 기준으로 앞·뒤에 예고표지를 배치한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설치와 안전관리사항을 담은 홍보물과 안내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내용수정	가이드북 또는 탐방지침서 등을 제작하여 노선안내 및 위험구간에 대한 사전교육에 활용한다.

3. 유형별 운영 및 관리의 타당성 평가

가. 자연경관형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자연경관형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프로그램 계획의 경우 1차에서는 ‘마을내 체험관, 마을회관, 민박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성향에 맞춘 숙박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한다(4.5)’, 2차에서는 ‘마을 어메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4.4)’, 마케팅 및 홍보의 경우 1, 2차 모두 ‘온라인 서비

스를 이용하여 사전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 탐방가치를 알린다(4.6), (4.7)’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의 ‘노선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처를 한다(4.6), (4.7)’, 마을주민 역량 및 소득연계의 ‘마을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농촌마을길의 활성화와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4.5), (4.5)’ 또한 1, 2차 모두 긍정률과 평균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유형별 운영 및 관리 분석 결과(1·2차)

구분	운영 및 관리 내용	자연경관형						역사문화형					
		1차			2차			1차			2차		
		긍정률 (%)	표준편차	평균	긍정률 (%)	표준편차	평균	긍정률 (%)	표준편차	평균	긍정률 (%)	표준편차	평균
프로그램 계획	스토리텔링, 설화, 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문화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	0.7	3.9	60	0.6	3.8	80	0.4	4.8	84	0.3	4.9
	마을 어메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4	0.8	4.2	80	0.6	4.4	68	0.7	4.4	72	0.7	4.5
	당일, 1박2일, 2박3일 코스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로 계획한다.	76	0.6	3.8	60	0.8	4.0	52	1.0	4.0	72	0.7	4.3
	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체험경험과 추억을 제공하여 해당 방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	48	1.0	4.3	72	0.7	4.2	60	0.8	4.2	76	0.6	4.2
	농촌 문화의 정서공유를 위하여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코스별 이벤트를 시행한다.	64	0.7	3.9	68	0.6	3.8	48	0.9	3.9	60	0.8	3.9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의 경우 사전 예약제를 이용한 수요관리를 통한 체험의 질을 높인다.	48	0.7	4.0	76	0.6	4.1	64	0.9	4.1	76	0.6	4.2
	주변 레저시설을 적극 연계하여 이용자의 흥미유발과 체험범위를 넓힌다.	32	0.8	3.3	32	0.9	3.2	52	1.0	3.8	48	0.8	3.6
	마을 내 체험관, 마을회관, 민박 등을 활용하여 이용객 성향에 맞춘 숙박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68	0.7	4.5	76	0.7	4.3	76	0.6	4.5	80	0.6	4.4
마케팅 및 홍보	마을주변 문화·생태·경관자원과 상징 시설물을 이용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68	0.9	3.4	40	0.7	3.5	48	1.1	3.7	52	0.8	3.9
	심벌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	76	0.7	4.1	76	0.7	4.1	64	0.9	4.1	80	0.7	4.2
	농촌마을길 조성 시 농촌의 이미지가 담긴 용어, 마을 기존의 길을 이용한 명칭을 우선으로 명명한다.	40	1.1	3.8	60	0.8	4.0	52	0.9	3.9	60	0.8	4.0
	마을을 통하는 구체적인 노선의 위치와 장소정보 및 노선의 길이를 표시한다.	60	0.9	4.5	80	0.6	4.5	76	0.6	4.4	80	0.6	4.5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 탐방가치를 알린다.	72	0.7	4.6	84	0.5	4.7	80	0.5	4.5	84	0.5	4.7
모니터링 및 평가	전국의 걷기동호회와 연계하여 이용객 증진을 도모한다.	72	0.6	3.6	28	0.9	3.4	44	1.1	3.7	36	0.8	3.4
	노선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처를 한다.	72	0.7	4.6	76	0.7	4.7	68	0.8	4.4	72	0.7	4.5
	길 주변에 인접한 자연생태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물종별 서식 종수와 개체수를 파악하고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72	0.9	4.3	72	0.7	4.2	28	1.1	3.3	36	0.6	3.4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이용객들의 이용밀도를 조정하여 체험의 질을 높인다.	56	1.0	4.2	72	0.9	4.3	52	1.0	3.8	48	0.8	3.7
	사업 분야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68	0.7	4.5	80	0.6	4.5	72	0.7	4.5	80	0.6	4.5
	노선별 모니터링 평가 시 이용자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면에서 실시한다.	72	0.6	4.4	76	0.7	4.2	80	0.5	4.4	80	0.5	4.2
	지속적인 관리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여 훼손 및 노후화를 방지한다.	40	0.9	4.5	84	0.5	4.5	80	0.5	4.6	84	0.5	4.5
	재해나 사고 시 참가자의 위치파악 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길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다.	28	1.1	4.4	80	0.6	4.5	72	0.6	4.3	80	0.6	4.3
마을주민역량 및 소득연계	우기시에는 반드시 배수시설을 재점검하고 배수체계를 정비한다.	68	0.9	4.3	76	0.7	4.4	68	0.7	4.3	80	0.6	4.3
	지역 및 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소 및 주변 관광지를 적극 연계한다.	80	0.5	4.4	76	0.7	4.4	76	0.8	4.6	80	0.6	4.5
	여행자 및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토속 먹거리 등을 제공 및 판매한다.	76	0.4	4.5	80	0.6	4.4	72	0.7	4.5	76	0.7	4.4
	지역환대,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이용객과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 가능하도록 한다.	76	0.6	4.3	84	0.5	4.4	72	0.7	4.4	84	0.5	4.4
	마을 내 주민의 해설가이드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72	0.7	4.3	80	0.6	4.4	68	0.9	4.4	80	0.6	4.4
	마을회관, 게스트하우스를 쉼터, 숙박지로 적극 활용하여 농촌마을의 소득창출 가능성을 높인다.	52	0.7	4.4	76	0.7	4.4	76	0.6	4.5	80	0.6	4.5
	효과적인 마을 관리를 위하여 마을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및 교육을 추진한다.	76	0.5	4.4	76	0.7	4.5	68	0.8	4.4	76	0.7	4.6
	마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농촌마을길의 활성화와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60	0.9	4.5	80	0.6	4.5	72	0.7	4.4	80	0.6	4.5
마을 구역별 관리 및 이웃 마을과의 적극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44	0.8	4.3	80	0.6	4.3	72	0.7	4.4	80	0.6	4.4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40	0.9	4.3	76	0.6	4.1	72	0.7	4.4	80	0.5	4.2	

나. 역사문화형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역사문화형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프로그램 계획은 ‘스토리텔링, 설화, 길과 관련된 흥미로

운 이야기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문화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4.8), (4.9)’, 마케팅 및 홍보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정보를 미리 제공

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 탐방가치를 알린다(4.5), (4.7)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여 훼손 및 노후화를 방지한다(4.6), (4.5)’가 1, 2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주민 역량 및 소득연계의 경우 1차에서는 ‘지역 및 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소 및 주변 관광지를 적극 연계한다(4.6), 2차에서는 ‘효과적인 마을 관리를 위하여 마을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및 교육을 추진한다(4.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다. 수정된 운영 및 관리 계획기술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운영 및 관리 는 긍정률이 75%미만이거나 평균이 3미만으로 측정된 내용과 전문가의 추가적인 기술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 항목 10건, 삭제항목 2건, 추가항목 3건으로 재수정되었

으며, 프로그램계획에서 ‘농촌 문화의 정서공유를 위하여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코스별 이벤트를 시행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이용객들의 이용밀도를 조정하여 체험의 질을 높인다’의 결과 값이 낮게 나타나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추가된 항목으로는 프로그램계획에서 ‘농촌 문화만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정적인 휴양기회를 제공한다’, 마케팅 및 홍보 ‘지역 주민 주도의 이용을 우선시하여 재방문율을 높인다’, 모니터링 및 평가 ‘노선 이용객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고 정비시 고려한다’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되었다(Table 10). 운영 및 관리에서의 1·2차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프로그램계획 8개, 마케팅 및 홍보 7개, 모니터링 및 평가 8개, 마을주민 역량 및 소득연계 9개 항목으로 총 32건으로 확정되었다.

Table 10 수정된 운영 및 관리 내용

구분	1차 및 2차 내용	변경사항	확정 내용
운영 및 관리	마을 어메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용수정	마을 어메니티를 적극 활용한 농촌마을길만의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당일, 1박2일, 2박3일 코스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로 계획한다.	내용수정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단기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체험경험과 추억을 제공하여 해당 방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	내용수정	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체험경험 및 향수를 제공하여 해당 방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
	농촌 문화의 정서공유를 위하여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코스별 이벤트를 시행한다.	내용삭제	-
	주변 레저시설을 적극 연계하여 이용객의 흥미유발과 체험범위를 넓힌다.	내용수정	주변 레저시설을 연계하여 이용객의 흥미유발과 체험범위를 넓힌다.
	-	내용추가	농촌 문화만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정적인 휴양기회를 제공한다.
	마을주변 문화·생태·경관자원과 상징 시설물을 이용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내용수정	브랜드 가치 창조를 위하여 마을 및 주변 자원을 이용한 거점역할이 가능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심별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	내용수정	농촌마을길의 유형별 심별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
	전국의 걷기동호회와 연계하여 이용객 증진을 도모한다.	내용수정	농촌마을길 홍보 초기에는 전국의 걷기동호회와 연계하여 이용객 증진을 도모한다.
	-	내용추가	지역 주민 주도의 이용을 우선시하여 재방문율을 높인다.
	노선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처를 한다.	내용수정	노선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길 주변에 인접한 자연생태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물종별 서식 중수와 개체수를 파악하고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내용수정	길 주변에 인접한 자연생태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적 수용력을 파악하고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이용객들의 이용밀도를 조정하여 체험의 질을 높인다.	내용삭제	-
	-	내용추가	노선 이용객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고 정비시 고려한다.
마을주민역량 및 소득연계	마을 내 주민의 해설가이드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내용수정	마을 내 주민의 해설가이드 교육 및 농촌마을길 이용 사전교육을 적극 권장하여 주민들에 의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내용 확정

1,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시된 ‘노선계획’, ‘설계 및 시공’, ‘유형별 운영 및 관리’ 부분 답안의 평균 3미만은 삭제, 긍정률이 75%이하인 프로그램 내용은 설문지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수정, 내용추가, 내용삭제로 제시하였다.

노선계획부문에서는 유형에 따라 자연경관형의 경우 ‘습지, 둠벙 등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계시킨다’, 역사문화형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살려 노선의 이미지를 조성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유형별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두드러지게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계 및 시공의 경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현장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한 내용들로 수정되었으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자연재료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운영 및 관리부문에서는 유형별로 두드러지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계획에 있어서 자연경관형의 경우 ‘마을 어

메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역사문화형은 ‘스토리텔링, 설화, 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적극 반영한 지역 문화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두 유형이 추구하는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길의 가이드라인에서 새로 추가한 ‘마을주민역량 및 소득연계’항목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은 꾸준히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관광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고, 농산품 시장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다양한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점(김중호 등, 2007)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마을길 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방향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총 105건의 항목으로 유형별 노선계획은 33건(공통 14, 자연경관형 9, 역사문화형 10), 설계 및 시공은 40건(노선10, 보행안전시설 12, 부대편의시설 8, 안내시설 10), 유형별 운영 및 관리는 32건(프로그램 계획 8, 마케팅 및 홍보 7, 모니터링 및 평가 8, 마을주민역량 9)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11).

Table 11 확정된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특성

구분	세부내용
노선 계획 (33)	기존 산책로(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보길)나 마을길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타 부처, 지자체 등 조성계획 및 기 조성된 길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노선 선정 시 외부 길 전문가와 현지 마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한다.
	마을의 농촌 어메니티 활용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시 하면서 주변의 가치 있는 자원과 연계시킨다.
	자연경관의 조화와 연속성이 유지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주민거주지 노선선정은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며 무분별한 관통을 제한한다.
	농촌지역주민의 사생활 및 경작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을 설정한다.
	길의 시·종점 접근시 대중교통 및 자가용방문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가급적 순환이 가능하며 단절구간 없이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노선을 선정한다.
	방문객들이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지치지 않도록 일부 그늘 길을 포함한 노선을 선정 한다.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노선을 먼저 고려한다.
	도로나 철도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한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개발은 최소화하고 훼손지는 반드시 식생복원을 실시한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우선시 하며 보호가치가 있거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주요 보호종의 서식지는 우회한다.
자연 경관 형 (9)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형화된 노선형태를 지양하고 인공시설물은 가능한 배제한다.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자연재료를 이용하고 자연자원 색보다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계획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
	자원훼손은 최소화하되 경작지, 유실수 등 농촌경관이 부분적이라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주변 식생과 유사한 식물 종을 식재하여 경관을 유지시킨다.
	주요경관요소를 선정하고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자생식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태성을 증진시킨다.
습지, 둠벙 등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계시킨다.	

구분	세부내용
역사문화형 (10)	다른 종류의 생태계가 어우러지는 노선으로 선정하면 다양한 경관 감상이 가능하다.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숲길을 연계시킨다.
	역사문화자원의 주변 시설물은 과도하지 않고 간결한 디자인과 색채계획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역사문화자원과 유사한 재료를 적용하여 이질감 없는 경관을 조성한다.
	자원훼손이 없도록 조성 및 역사적 고증을 통한 옛길이나 유적지 등의 복원 계획을 실시한다.
	탐방대상인 역사문화자원을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배열한다.
	코스의 거리에 따라 10km 이상의 장거리는 관람형태를, 5km 내외는 체험형 형태를 위주로 탐방자원을 고려한다.
	역사문화자원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살려 노선의 이미지를 조성한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지역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갖는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충분한 해설기능을 제공(표지판, 모바일 앱 등)한다.
노선 (10)	단조로운 목적지 지향적인 코스보다는 출발지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순환성을 고려한다.
	일반 등산로와의 차별성을 위해 보행 쾌적성을 우선시한다.
	인공적인 디자인을 피하고 보행의 편의성을 위해 완만하고 자연스러운 곡선형 노선을 지향한다.
	노선의 길이, 체험형태 등을 다양화하여 이용객들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주변 식생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노폭을 유지한다.
	일률적인 경사는 피하며 7%의 미만의 적정경사도를 유지한다.
	자연 상태의 노면을 유지한다.
	노면포장은 탐방객 수, 바닥재질, 경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인공적인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포장구간은 최소한으로 한다.
	외부에서의 자재 반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현지 또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보행 안전 시설 (12)	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안전시설은 꼭 필요한 경우 안전성을 우선시 하며, 가능한 크기를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테크를 설치할 경우 보행 안전성 제고 및 자연재료인 목재를 이용한다.
	탐방로 내에 설치되는 교량은 재난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토사 유실이 많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급경사지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을 설치한다.
	배수는 현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한다.
	계단 양쪽과 시·종점에 배수처리를 반드시 고려한다.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계단은 높이 15cm이하 폭 30cm이상을 준수한다.
	야간보행을 위한 보행등 설치는 길 형태에 맞는 적절한 밝기와 배치를 고려한다.
	사면보호를 위해 노선에 인접한 산지 사면은 현존식생을 보존하고 나지 발생구간은 자연천이를 유도하여 식생복원을 실시한다.
부대 편의 시설 (8)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반침하방지·배수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과도한 지형훼손과 녹지훼손, 노선 주변 절·성토는 최소화한다.
	편의시설은 노선의 시·종점 및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가능한 인근의 마을 주요 시설을 활용한다.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며 일부 안내판이나 소규모의 로고 등은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한다.
	화장실 주변은 어울리는 식생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휴게시설은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이용을 함께 고려하여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한다.
	휴게시설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노선상황에 따라 벤치와 정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치한다.
안내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면적으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한다.
	다양한 신체적 조건의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등 가급적 사용자 중심의 설치를 한다.
안내	마을 내 주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기존 시설의 가치가 낮을 경우 리모델링한다.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연구

구분	세부내용
시설 (10)	동선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 시·중점 및 주요 거점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농촌마을길 마을지도와 루트, 지역의 자연,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변 자원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질을 높인다.
	종합안내판은 그래픽, 사진, 설명, 해설문 등을 단순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작한다.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재료의 화학처리는 가급적 지양한다.
	길이용에 있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방향유도시설은 반드시 설치한다.
	방향유도시설의 경우 분지점을 기준으로 앞·뒤에 예고표지를 배치한다.
	방향유도시설은 다양한 각도의 안내가 가능한 디자인 형태를 이용하여 유용성을 더한다.
	가이드북 또는 탐방지침서 등을 제작하여 노선안내 및 위험구간에 대한 사전교육에 활용한다.
프로그래밍 계획 (8)	스토리텔링, 설화, 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문화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을 어메니티를 적극 활용한 농촌마을길만의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단기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체험경험 및 향수를 제공하여 해당 방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의 경우 사전 예약제를 이용한 수요관리를 통한 체험의 질을 높인다.
	주변 레저시설을 연계하여 이용객의 흥미유발과 체험범위를 넓힌다.
	마을 내 체험관, 마을회관, 민박 등을 활용하여 이용객 성향에 맞춘 숙박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마케팅 및 홍보 (7)	브랜드 가치 창조를 위하여 마을 및 주변 자원을 이용한 거점역할이 가능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농촌마을길의 유형별 심벌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
	농촌마을길 조성 시 농촌의 이미지가 담긴 용어, 마을 기존의 길을 이용한 명칭을 우선으로 명명한다.
	마을을 통하는 구체적인 노선의 위치와 장소정보 및 노선의 길이를 표시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 탐방가치를 알린다.
	농촌마을길 홍보 초기에는 전국의 걷기동호회와 연계하여 이용객 증진을 도모한다.
	지역 주민 주도의 이용을 우선시하여 재방문율을 높인다.
운영 및 관리 (32)	노선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길 주변에 인접한 자연생태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적 수용력을 파악하고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노선 이용객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고 정비시 고려한다.
	사업 분야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노선별 모니터링 평가시 이용자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면에서 실시한다.
	지속적인 관리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여 훼손 및 노후화를 방지한다.
	재해나 사고시 참가자의 위치파악 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길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다.
	우기 시에는 반드시 배수시설을 재점검하고 배수체계를 정비한다.
마을 주민 역량 및 소득 연계 (9)	지역 및 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소 및 주변 관광지를 적극 연계한다.
	여행자 및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토속 먹거리 등을 제공 및 판매한다.
	지역환대,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이용객과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 가능하도록 한다.
	마을 내 주민의 해설가이드 교육 및 농촌마을길 이용 사전교육을 적극 권장하여 주민들에 의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을회관, 게스트하우스를 쉼터, 숙박지로 적극 활용하여 농촌마을의 소득창출 가능성을 높인다.
	효과적인 마을 관리를 위하여 마을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및 교육을 추진한다.
	마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농촌마을길의 활성화와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을 구역별 관리 및 이웃 마을과의 적극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V. 결 론

최근 들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지역 탐방을 통해 수려한 경관을 즐기고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도보 여행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직으로 오르는 등산과 달리 수평적 활동의 개념이 더 큰 ‘도보길’은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소한 면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이 있다. 때문에 보고 듣고 즐기는 여행에서 탈피해 자연과 교감하며 그 속에서 사색하기를 원하는 여행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보여행은 건강을 중시하는 새로운 여가문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2007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받아 제주도 올레길이란 개인에 의해 조성된 이후 전국 곳곳에 옛길, 숲길, 마을길, 논둑길 등의 ‘도보길’ 조성 열풍을 몰고 왔다(심현남, 2011). 농촌 마을길 조성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전략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탐방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촌마을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계획 요소 및 특성을 도출하였다. 전문가조사 결과 노선계획의 공통부문에서 가장 높은 긍정률 및 평균을 나타내는 항목은 ‘기존 산책로나 마을길 등을 최대한 활용’이었으며, 자연경관형의 노선계획 시 ‘주요경관요소를 선정하고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역사문화형 노선계획 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충분한 해설기능 제공’으로 나타났다. 설계 및 시공의 노선부문에서는 ‘인공적인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포장구간은 최소화’, 보행안전시설에서는 ‘과도한 지형훼손과 녹지훼손, 노선 주변 절·성토는 최소화’, 부대편의시설에서는 ‘노선의 시·종점 및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가능한 인근 마을 주요 시설의 활용’, 안내시설에서는 ‘동선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의 시·종점 및 주요거점에 안내판 설치’로 나타났다. 운영 및 관리부문에서는 유형별로 두드러지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계획에 있어서 자연경관형의 경우 ‘마을 어메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높게 나타났다음에 비해 역사문화형은 ‘스토리텔링, 설화, 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적극 반영한 지역 문화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이 높게 나타났다. 마케팅 및 홍보에서는 두 유형 모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 및 탐방가치를 알림’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지속적인 관리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여 훼손 및 노후화 방지’가

두 유형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길의 가이드라인에서 새로 추가한 마을주민역량 및 소득연계부문에서는 ‘지역환대,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이용객과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 가능하도록 함’이 두 유형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마을주민역량 및 소득연계항목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은 꾸준히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관광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고, 농산품 시장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다양한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점(김종호 등, 2007)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 선정 및 결과도출 시 국내에 ‘길’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수는 많지 않아 상이한 전공분야의 전문가 패널들로부터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복잡한 탐방로 노선계획의 조성과정 시 고려해야 할 조성요소들을 단순화시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길 조성 시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지역특성, 잠재자원, 경제적 요소, 마을주민 및 이용자의 입장과 수요 등의 연구들을 유기적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효과적으로 체험 및 감상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이상적인 농촌마을길 형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1) 2010. “느림의 가치”걷는 길의 확산에 따른 경남의 정책방향에서 말하는 슬로우(Slow), 즉 느림의 개념은 단순한 속도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속, 친환경, 감성’ 건강과 같은 네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삶의 만족과 균형감을 느끼고 속도경쟁에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PJ00864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참고문헌

1. 경남발전연구원, 2010, “느림의 가치”걷는 길의 확산에 따른 경남의 정책방향.

2. 김상욱, 2012,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한 중요도 성취도 분석: '구불길'군산저수지 구간을 중심으로, 농업과학연구, 39(3), 319-325.
3. 김종호, 전준현, 이덕재, 이광희, 김성일, 김통일, 2007, 농·산촌 개발마을 사례별 마을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한국임학회지, 96(6), 714-723.
4. 문옥표, 2000, 그린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 군마현의 '충합교류터미널'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205-232.
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09,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가이드라인 연구.
6. 박병욱, 2008, 도시 숲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양림산 자연생태조사를 통하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현만, 2012, 지역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고창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심현남, 2011, 안동시 낙동강유역 문화경관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안송이, 2010,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지형관찰 학습길 활성화 방안: 설악산국립공원을 사례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안승일, 2012, 농산촌 진흥을 위한 GRAT-Tourism 적지선정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윤나리, 2009, 백제문화권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이순주, 2012, 자연탐방로 만족요인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승주, 한봉호, 강현경, 이수동, 김상범, 2009, 농촌 전통테마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곡리 여산팔경 마을 생태탐방로 노선설정 방안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15(3), 61-79.
14. 이종성, 2001, 「텔파이방법」, 서울 : 교육과학사.
15. 이종인, 조근태, 신봉철, 2007, 농업환경분야의 텔파이 기술예측조사, 강원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논문집 18, 126-127.
16. 임휘룡, 2010, 서울 북악산 군 순찰로를 활용한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및 이용 프로그램 개발,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전강은, 홍석호, 김세용, 201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거리 조성계획,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1), 33-50.
18. 정휘, 양병이, 2008a, 광역 탐방로 노선선정을 위한 계획요소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5), 35-41.
19. 정휘, 2008b, 광역 생태탐방로 노선선정 계획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하은찬, 2012, 고군산군도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탐방로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한국관광공사, 2009, 가족여행실태조사 보고서.
22. 한봉호, 배정희, 안인수, 이경재, 2009, 산지형 도시 공원 내 보행약자를 위한 산책로 조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6), 22-33.
23. 환경부, 2008,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
24. Anderson, D., 1997, Strand of system, The Philosophy of C, Pierce, West lafayette : Purdue University Press.
25. Halfacree, Keith H, 1995, Talking about rurality: Soci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 as expressed by residents of six English parished. Journal of Rural Studies, 11(1), 1-20.
26. Petrzelka, P. Krannich, R. Brehm, J. & Trentelman, C. K., 2005,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1121-1137.
27. Short, J, 1991, Immagined country. Loutledge. London.

접 수 일: (2013년 2월 7일)

수 정 일: (1차: 2013년 2월 16일, 2차: 3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6일)

■ 3인 익명 심사필